



범부가 부처, 그들의 삶이 경전

신묘년 동안거 해제 현장을 가다

설악산 신홍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 해제 법문



2월 6일 신묘년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조계종 전국 100여 선원에서 2500여 수좌 스님들이 세상을 만났다. 중국에서 심인(心印)을 얻어 양양 진전사에서 처음 선법을 펼친 조계종조 도의 국사 선종이 조계종 중흥이던 고암 스님과 성준 스님을 거쳐 현재 조실 오현 스님에게로 울퉁이 살아있는 백담사 무급선원과 신홍사 향성선원의 70여 수좌스님들도 선방 문을 열었다. 이번 동안거에는 무급선원 무문관에 11명, 향성선원에 14명, 기본선원에 46명의 스님들이 정진했다.

설악산 신홍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이 2월 5일 신홍사 설법전에서 열린 신묘년 동안거 해제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스님은 평소 법문대신 격외도리를 말했으나, 이날은 오랜 시간 대중을 위해 법문 했다. 특히 이번 법문은 무산 스님이 2011년 8월 하안거 해제법회때 조실로 추대된 이후 첫 법문이다. 신홍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매 해제 전 일 해제법회를 열고 있다.

“스님, 살아가는 의미가 됩니까? 무산 스님은 한 스님이 포교당을 개원법

회라고 불러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간 일이 있다며 한 노파와의 대화를 소개했다.

“한 늙은 할망구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더니 나를 뽀뽀뽀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스님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줄 알았는데, 스님도 파사파사 늙었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사는 의미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사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스님은 그 질문 끝에 바로 말문이 막혔다고 회고 했다. “80년을 살면서도 어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 나는 몰랐다.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아는가?” (좌중이 고요했다.)

무산 스님은 “여러분도 모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는 이가 한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쫓겨날 뻔 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무문관서 개구명으로 밤 한술 넣어주는 것만으로 3개월 징역살이를 하거나, 40-50이 선원 큰방서 매일 같은 반찬을 먹으며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돈·명예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를 구하려 앉아있던 것이 다”라고 말했다.

무산 스님은 “오늘이 해제인데, 해제는

해방이 아니다. 산중에 가부좌 틀고 앉아있던 것보다 더 큰 고행이 기다리는 것이 해제이다”라며 “해제하면 53선지식 친견을 위해 길을 나섰던 선재동자처럼 여러분도 산문을 나가 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 선지식에 가서 내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산 스님은 “나도 젊었을 때는 선지식이 명상대할, 천년고찰, 산중 수행처, 백운 유수처에 있는 줄 알았다. 공자는 ‘50세면 안다(知天命)’고 했는데 나는 50세 까지도 몰랐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스님은 “(80의) 내가 보는 세상과 (젊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다르다. 나는 대학도 안나왔고, 운전도 못한다. 여러분이 나보다

수행은 생사문제 해결 위함 해제는 수행 쉽 아닌 점검 '내가 모르는 세상 있다' 알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구하라

더 잘하는 게 많다. 나는 할 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만은 안다. 여러분도 자신이 아는 세계 보다 모르는 세계가 무진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옥·극락이 있기는 합니까?” 스님은 예전에 만난 늙은 염장이와의 대화로 법문을 이어갔다. 스님은 “그 염장이 염장은 시신을 자기 마누라 다루듯 소중히 여겼다. 마지막 관부경을 덮을 때까지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부가 같이 살을 맞대고 살다가 죽으면 무섭다며 결에 안가는데 저 염장이

는 어찌 저릴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염장이 염장에게 물어봤다. 얼마나 염을 했냐고 물으니 40년 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정성을 들여 하느냐고 물었다.”

염장이염장은 스님의 질문에 “산사람은 남녀노소 등 구별이 있지만 죽은 사람은 남녀노소·지위고하 구분 없이 시비가 끊어진다. 산사람이 무섭지 죽은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시신을 보면 마치 내 자신의 지신을 보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스님에게 되묻기를,

“스님들이 죽은 사람에게 먼 곳에 불국토가 있다며 그 곳에 나라고 기도하던데 참말로 지옥·극락이 있습니까?”

무산 스님은 “염장이염장의 질문 끝에 동서남북 사방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법문하면서 10만억 유순 떨어지지 저 멀리 극락정토가 있다고 했고, 마음이 극락이라고도 했다. 그 질문에는 멍하니 은산철벽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염장이염장은 스님에게 시신을 보면 세상을 후덕하게 살았는지, 남에게 못할 짓을 하며 살았는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잘 살다 죽은 시신은 대중 염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다. 잘 살지 못했던 시신과 대화해보면 ‘남들처럼 내 가족 호강시켜 주려고 했다. 다른사람 자꾸 울리면 내 유훈통 터져 극락못갑니다’라고 하더라. 그러니 내 자신·엄마·형제·친구 같은 그들에게 정성을 쏟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염장이염장은 “나는 내 마음이 편하려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염을 해왔는데 스님 눈에는 시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더니 부끄러웠다. 나는 아직도 떨었다”라고 말했다.

무산 스님은 “나는 아직도 떨었습니다”라는 염장이염장의 말에 내가 더 부끄러웠다. 염장이염장이 선지식이고 그의 이야기가 대장경이다. 생노병사·제행무상·화염·범화·조사문답과 여록 등이 모두 염장이염장의 말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

했다.

“골동품 아닌 살아있는 경전을 찾아라” 무산 스님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골동품이 아니다. 좋게 말해야 문화재이다. 대장경 속에 억만 장생이 빠져 죽었다. 그 속에서 건질 것이 없다. 건져도 건져내도 건져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500년 불교사에서 대장경을 읽고 그 속에 빠져 죽은 중생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진리이다. 대장경에서는 부처님이 어땠고, 어땠고... 도대체 부처님이 어땠다는 것이냐. 이것을 버리는 날이 해제날이다.”

스님은 “법회가 끝나면 여러분은 선지식을 찾아 나간다. 세상 속 중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 선지식을 찾고 가르침을 구하라. 사

선지식은 내 주변에 있어 공양주 보살부터 선지식으로 무늬자 화두 등은 조사의 그물 옳된 고삐 풀고 대자유인 돼라

람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살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상 속에서 문수의 지혜를 배우고 보현의 행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산 스님은 당장 스님들과 가까이 있는 공양주보살·부목처사부터 선지식 대하듯 하라고 했다.

“절간에 부처가 있나? 절간은 스님들 속 소이지 부처는 한 놈도 없다. 여러분이 못하는 일을 공양주가 하고, 처사가 한다. 그들을 선지식으로 받들어 모셔라.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하찮은 일을 하는 그들이 문수고 보현이야.”

스님은 “전강 스님은 30대에 깨달음을 얻었다. 경허 스님은 한 철 만에 깨달았고, 만해는 선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깨달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천 년 전 중국의 육조·조주·백장·남침 등 할 일 없는 늙은이들의 뉘뒤리에 코가 꿰어 사는가?”라고 물었다.

무산 스님은 “차나 한잔 들고 가게나(喫茶去)’를 비롯해 법이 있느냐·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無)’라고 답한 것 모두 조주 늙은이가 친 그물이다. 삼척전심 분반과 어찌고 하는데 지금은 초고속인터넷 세상이고,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다. 자신을 옳된 고삐를 풀고 대자유인이 돼라”고 말했다.

“더 솔직하게 진정성 키워라” 스님은 수행자의 덕목으로 대신심(大信心) 대의정(大疑情) 대반심(大憤心)을 강조했다.

스님은 “바른 사람이 사된 법을 설하면 사된 법도 정법처럼 되고, 사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 정법은 모두 사된 법이 된다(正人說邪法 邪法悉歸正 邪人說正法 正法悉歸邪)”는 <금강경오가해> 중 아부승을 소개하며, “좀 더 솔직하게 진정성을 갖고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문에 앞선 4일 백담사 무급선원 유나 영진 스님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안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신홍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은... 어릴 때 절간 소머슴으로 입산해 1959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0~1966년 밀양 금오산 토굴에서 정진한 뒤 1968년 범사에서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신홍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현재까지 신홍사 선원장으로 주석하며 신홍사 향성선원, 백담사 기초선원 및 무급선원(무문) 등을 개원했다. 스님이 개원한 백담사 무급선원과 기초선원에서는 문경 봉암사 다음으로 많은 수좌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스님은 도의 국사가 중국에서 선법을 도입해 창건한 조계종 총장 직전사를 복원했다.

스님은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심우도> <절간 이야기> 등 작품집이 다수있다. 만해 사상실천연합회를 통해 만해 스님의 뜻을 기려왔다. 이같은 공적으로 조계종은 2011년 10월 무산 스님에게 제23회 포교대상을 수여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줌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업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옴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재본
- 크 기 : 435mm×300mm

중이영가웃 / 예수재함 / 중이신발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정가 1,200원 (100명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정가 1,000원 (100명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정가 800원 (100명 이상)

수자영가웃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원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원 (50개 이상)

금강경타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 (600개 이상)

중이신발(남/여) 1컬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한지집은 영가웃/위패 약100개 30,000원 *남지/여지/위패

영가/방수등표대 판매가 35,000원 *비닐+등표+집게 *9.6cm×22cm *100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공단등(6cm) @2,500원 (50개이상)
- 공단등(8cm) @3,0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cm) @5,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cm) @10,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cm)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6cm) @2,500원 (50개이상)
- 바림등(8cm) @3,0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cm) @5,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cm) @10,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cm) @8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만월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단 접 등(10.5cm) 340,000원(100개)
- 비단 접 등(12cm) 350,000원(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cm / 25cm / 30cm | 50cm 1m / 2m

5줄이상 @65,000원 기타무선방선

LED전구 A형 110,000원(국산) 150K: 50개 색상: 옅파색/주광색

LED전구 B형 160,000원 150K: 100개 색상: 옅파색/주광색

전구(5W/8W) @450원(국산) 150K: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볼츠크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규격: 볼츠크 내외 인쇄용량 내지: 18.5×25.6cm 봉투: 19×13cm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051) 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